

는 것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보여준 삶의 방식을 배우고자 함이다. 배움의 목적은 물론 나의 삶의 방식의 변화에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학문적 연구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고전을 읽었을 때, 지금-여기에 존재하는 우리는 논어나 묵자, 성서의 본래적 의미를 왜곡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채 개인의 주관적 해석에 머물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동시에 남겨진 기록물은 독자의 독서 방식에 따라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읽히기도 한다.

문제는 과거와 현재, 거기와 여기가 소통하는 방식이다. 지금-여기가 그때-거기에 매몰되어서도 안 되고, 그때-거기는 무시한 채 지금-여기만을 주장해서도 안 된다. 전자의 경우 현재 독서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이며¹¹⁾, 후자의 경우는 굳이 그 책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무슨 책을 읽어도 마찬가지로 일 테니까! 따라서 우리의 읽기는 서로가 서로를 읽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성서와 논어, 묵자는 그 서물을 만든 이들의 질문과 대답이 들어 있다. 그 안에 콘텍스트와 텍스트가 함께 들어 있다. 오늘 우리 또한 우리들의 문제에 대해 묻고 답을 고민한다. 우리의 콘텍스트와 텍스트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독서는 이 각각의 세계의 상호교류를 기대한다(비판적 상호관계 읽기¹²⁾). 특별히 논어가 그 때-여기라는 나름의 연속과 불연속의 중첩 속에서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한다면, 묵자를 통해서는 그 때-여기의 또 다른 생각을 읽게 되고, 그 때-거기인 성서를 통해서는 낯설에 놀라면서 우리는 한 번 더 깊은 배움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동시에 헬라어, 한자, 한국어라고 하는 세 가지 언어의 만남과 종교적 언어와 인문학적 언어의 차이들은 우리의 여행에 맛을 더하게 해 줄 것이다. 자, 그럼 여행을 떠나보자!

7. 다음 주 안내: 전쟁과 평화

- 공자와 묵자 그리고 예수가 살았던 시대는 전쟁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오늘날도 전 세계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들의 일상 또한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자와 묵자, 예수는 전쟁이 인간의 삶에 끼치는 해악들을 살피고 그것에 대해 고민했던 이들이다. 따라서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다음 주는 공자와 묵자, 예수의 시대에 대해 살핀다.

11) 이탈리아의 역사 철학자 크로체의 말처럼 모든 역사는 현대사이며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2000년 전의 언어와 2500년 전의 언어는 오늘 우리에게 의미 있을 때에만 진리로 다가 올 것이다.

12) 현대 서양 철학에서 해석학이라고 하면, 이해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으로서의 해석학과, 해석의 주체인 인식론적 주체 자체의 존재의 구조를 이해하려는 철학으로서의 해석학, 그리고 해석 대상 즉 텍스트 내용의 이데올로기적 구조를 성찰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려는 비판으로서의 해석학이 있다. 비판적 상호 읽기는 이 모두를 함께 고려하는 읽기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는 지금 “그때-거기”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일종의 기록을 “지금-여기”에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해의 목적은 독자인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옛글을 이해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논어가 되었던 성서가 되었던 그것은 일차적으로 예수나 공자가 직접 쓴 것이 아니다. 예수나 공자의 말이 구전을 거쳐 전해지다가 어느 시기에 필요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첫 발화자인 공자와 예수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듣는 청취자들에게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말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말은, 하는 이나 듣는 이가 충분히 공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때로는 말의 내용이 어렵거나 낯선 것이어서 금방 이해가 가지 않았을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의 가능성도 많다(이 부분은 자못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⁹⁾). 그러나 일차적으로 처음의 말은 상호이해가 가능하다는 전제아래에서 발화된다. 그런데 그 말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전달자의 상황 이 개입하고 해석이 끼어든다. “제자들의 기억”은 예수나 공자의 원 말씀과는 일정한 차이가 난다. 왜냐하면 기억은 사실의 전부가 아닐뿐더러 일부를 선택함에 있어 이미 주관적 해석과 느낌이 포함된 현상이기 때문이다. 또 최종적으로는 그 전해온 말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기록자의 상황과 고의적 또는 비의도적 해석이 반영되고 첨가된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에서 말을 하고 듣고, 전하고 기록하는 이들은 단순히 순수한 개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은 누구나 사회 속에 속해 있어 그 당시의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정치·사회·경제·문화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같은 시대와 공간을 함께 살았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독특성은 또한 당대의 일반적 평균으로 재단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영원히 예수나 공자의 본래 그 말의 의미를 완벽하게 재현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자나 예수가 했을 법한 말의 의미를 가능한 당시 발설했던 때의 의미로 재구성하는 노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계속 되고 있고 또한 일정한 성과도 나오고 있다. 그 연구 성과 덕분에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예수와 공자가 직접 했을 법한 말의 의미와 의도를 나름 객관적 울타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학자마다 엄청난 논란과 논쟁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예수나 공자, 묵자는 하늘에서 온 천사나 요정은 아니었다. 하느님의 아들로 인정되고 성인으로 추앙되어도 그들은 분명히 이 땅에 두발을 딛고 살았던 사람들이다.¹⁰⁾ 당시에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각각의 대처방안을 내어 그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이들이다. 우리가 오늘 고전을 읽

9) 성서가 사뭇 하느님의 말씀이라고 고백되고 예수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된다면 더욱 그러하다.

10) 역사성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모든 인간은 역사 속의 인간이며, 역사적 문맥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인간 자신과 인간에 의해 지어진 모든 문명의 총화는 다른 시대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다른 시대 상황과 다른 개인은 그들이 처하고 있는 특수한 시점과 관점 속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입할 때만이 이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상상력을 동원할 때, 우리 시대의 시간과 공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공간적 지평의 제약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 최대한의 다양한 측면의 학문적 방법론을 통하여 과거의 작품의 의미를 알아낸다 해도, 지금 나의 생의 경험과 맞닿는 부분이 없다면 이해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치열하게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 치열함이 사라진다면 작품의 독자성과 자율성은 사라지고, 독자에 의해 제멋대로 왜곡되는 현상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그런가 의심하며, 아래 선비가 내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그가) 크게 비웃지 않으면 도가 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예부터 전하는 말이 있다. 밝은 도는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서는 것 같으며, 크고 평평한 길은 어그러진 듯 보이고, 높은 덕은 아래굴짜기 같아 보이고, 매우 흰 것은 티끌이 묻은 것처럼 보이고, 넓은 덕은 부족해 보이고, 굳건한 덕은 가벼워 보이고, 질이 좋은 것이 투박해 보이고, 큰 사방은 구석이 없으며, 큰 그릇은 완성됨이 없으며, 큰 음은 소리가 없고, 큰 모양은 형체가 없다. 도는 숨어 있기에 이름이 없다. 따라서 무릇 도라는 것은 잘 빌려주고 이루는 것! (上士聞道, 勤而行之; 中士聞道, 若存若亡; 下士聞道, 大笑之. 不笑不足以爲道. 故建言有之: 明道若昧, 進道若退, 夷道若顚, 上德若谷, 大白若辱, 廣德若不足, 建德若偷, 質真若渝, 大方無隅, **大器晚成**, 大音希聲, 大象無形, 道隱無名. 夫唯道, 善貸且成) <노자, 41장>

제나라 환공이 대청마루 위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수레바퀴 수리공이 마루아래에서 수레바퀴를 깎고 있다가, 몽치와 끌을 내려놓고 마루위로 올라 와서 환공에게 물었다. “전하께서 읽으시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환공이 대답하였다. “성인의 말씀이다.” “그 성인이 살아 계신가요?”하고 묻자, 환공이 “벌써 돌아가셨다네.”라고 대답하자, 목수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전하께서 읽고 계신 것은, 옛사람의 찌꺼기(糟粕)로군요.” 하자, 환공이 말했다. “아니, 내가 글을 읽는데 네가 감히 그런 말을 하다니... 그만한 이유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살아 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수리공은 거침없이 이렇게 말했다. “소신은 제가 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이옵니다. 나무를 깎아 바퀴에 맞출 때 너무 수월하게 들어가면 헐거워서 덜거덕거리게 되고, 너무 꼭 끼게 하려면 볼이 채서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너무 헐겁지도 않고 너무 끼지도 않게 하려면, 손에 익어 마음으로 느껴야지 말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지요. 그 사이에 꼭 맞는 치수가 있긴 하겠지만 소신이 자식에게도 가르쳐 줄 수가 없었고, 자식도 소신에게서 배울 수가 없었나이다. 그래서 소신은 이 나이가 되도록 손수 이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 성인들도 그 분이 돌아가신 뒤에는 그 마음의 재주란 것이 전해질리가 없지 않겠나이까? 그러므로 전하께서 읽고 계신 것도, 옛 사람들의 마음의 찌꺼기 밖에 더 될 것이 없다는 뜻으로 아뢰었나이다.”

[桓公讀書於堂上, 輪扁斲輪於堂下, 釋椎鑿而上, 問桓公曰: “敢問公之所讀者何言邪?” 公曰: “聖人之言也.” 曰: “聖人在乎?” 公曰: “已死矣.” 曰: “然則 君之所讀者, 古人之糟粕已夫.” 桓公曰: “寡人讀書, 輪人安得議乎? 有說則可, 無說則死!” 輪扁曰: “臣也, 以臣之事觀之, 斲輪徐則甘而不固, 疾則苦而不入. 不徐不疾, 得之於手而應於心, 口不能言. 有數存焉於其間, 臣不能以喻臣之子, 臣之子亦不能受之於臣. 是以行年七十而老斲輪. 古之人與其不可傳也死矣. 然則君之所讀者, 古人之糟粕已夫. (『莊子』, 「天道」)]

위의 이야기는 언어[특히 문자언어]의 애매함과 불완전성에 대한 것이다.

의미

4) **역사의 인물로 바라보기**: 공자와 목자 그리고 예수의 역사적 모습을 살펴⁸⁾ 우리네 삶을 성찰(의도적인 사색적 주의!)하기 위해~

6. 고전 해석과 관련하여: 상호주체적 이해와 역동적 상응

저 기수의 물굽이를 보라! 푸른 대나무 숲 울창하고, 멋드러진 군자, 자른 듯, 다음은 듯, 쪼은 듯, 간 듯, 쪽 뻗었고, 당당하고, 빛나고, 흰칠하네. 멋드러진 군자, 끝끝내 잊을 수 없어라! (瞻彼淇奥，綠竹猗猗，有匪君子，如切如磋，如琢如磨，瑟兮僩兮，赫兮咺兮，有匪君子 終不可諼兮!) <시경, 위풍, 기옥>

자공이 물었다. “가난한데도 아첨하지 않고, 부유한데도 교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선생님 말씀하셨다. “괜찮지. (그러나) 가난한데도 즐길 줄 알고, 부유한데도 예를 좋아하는 것만은 못하지.” 자공이 말했다. “시경에 ‘자른 듯, 다듬은 듯, 쪼은 듯, 간 듯’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두고 한 말이군요?” 선생님 말씀하셨다. “사야. 이제야 너와 시를 말할 수 있게 되었구나. 지난 것을 알려 주니 올 것을 알아차리는구나!”(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 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子曰: “賜也. 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학이, 15>

시경에 이르기를 “저 기수의 물굽이를 보라! 푸른 대나무 숲 울창하고, 멋드러진 군자, 자른 듯, 다음은 듯, 쪼은 듯, 간 듯, 쪽 뻗었고, 당당하고, 빛나고, 흰칠하네. 멋드러진 군자, 끝끝내 잊을 수 없어라!” ‘자른 듯, 다듬은 듯’이라고 한 것은 길을 배우는 것이다. ‘쪼은 듯, 간 듯’이라고 한 것은 자신을 닦는 것이다. ‘쪽 뻗었고, 당당하다’는 것은 진실되며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음을 말한다. ‘빛나고 흰칠하다’는 것은 위엄 있고 바른 자세와 태도가 드러남을 말하는 것이다. ‘멋드러진 군자 끝끝내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은 군자가 쌓은 도덕이 융성하고 지극히 선한데 이르러 백성들이 잊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詩云: “瞻彼淇奥，蓁竹猗猗。有斐君子，如切如磋，如琢如磨。瑟兮僩兮，赫兮咺兮，有斐君子，終不可諼兮。” 如切如磋者，道學也：如琢如磨者，自修也：瑟兮僩兮者，恂慄也：赫兮咺兮者，威儀也：有斐君子，終不可諼兮者，道盛德至善，民之不能忘也.) <대학>

윗 선비가 내 도를 들으면 삼가 행하고, 가운데 선비가 내 도를 들으면 그런가 안

8) 이것은 현 그리스도교의 개혁과도 깊은 관련을 갖는다. 민주의 가치가 일상화되고, 합리적 성찰이 보편화되며, 과학적 판단이 상식의 기준이 되고, 사회복지와 경제적 평등이 점차 갖추어지는 사회로 갈 때, 비이성적, 자기 욕망의 극대화를 추구했던 교회는 소멸할 것이 뻔하다. 참된 그리스도교로 거듭나는 길은 역사적 예수의 삶과 가르침으로 되돌아가는 것뿐이다. 이것은 교회가 죽는 길이자 곧 교회가 사는 길이다. 즉 교회가 만들어 낸 예수에 대한 케리그마를 죽이고 교회를 탄생시킨 역사적 예수 운동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교회가 산다.

기 속에서 운신하며 새로운 희망의 지평을 펼쳐 보인 바 있으니, 세속의 상식과 달리 실로 주체화의 노력이야말로 신앙의 알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영민, <당신들의 기독교> 11-13.

“철학을 포함한 인류의 문화적 업적은 깊은 사색적 주의에 힘입은 것이다. 문화는 깊이 주의할 수 있는 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깊은 주의를 과잉 주의(hyperattention)에 자리를 내주며 사라져가고 있다. 다양한 과업, 정보 원천과 처리 과정 사이에서 빠르게 초점을 이동하는 것이 이러한 산만한 주의의 특징이다. 그것은 심심한 것에 대해 거의 참을성이 없는 까닭에 창조적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저 깊은 심심함도 허용하지 못한다. 발터 벤야민은 깊은 심심함을 ‘경험의 알을 품고 있는 꿈의 새’라고 부른 바 있다. 잠이 육체적 이완의 정점이라면 깊은 심심함은 정신적 이완의 정점이다. 단순한 분주함은 어떤 새로운 것도 낳지 못한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재생하고 가속화할 따름이다. 벤야민의 꿈의 새가 깃드는 이완과 시간의 등지가 현대에 와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고 한탄한다. 이제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런 것을 ‘짜지도, 잣지도’ 않는다. 심심함이란 ‘속에 가장 열정적이고 화려한 안감을 댄 따뜻한 잿빛 수건이다.’ 그리고 ‘우리는 꿈꿀 때 이 수건으로 몸을 감싼다.’ 우리는 ‘수건 안감의 아라베스크 무늬 속에서 안식한다.’ 이완의 소멸과 더불어 ‘귀 기울여 듣는 재능’이 소실되고 ‘귀 기울여 듣는 자의 공동체’도 사라진다. 이 공동체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이 우리의 활동 공동체이다. ‘귀 기울여 듣는 재능’은 깊은 사색적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에 바탕을 둔다. 지나치게 활동적인 자아에게 그런 능력은 주어지지 않는다.” 한병철, <피로사회> 32-33.

1) 옛날 이야기의 필요성: 역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간직하거나 축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고전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인간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들리게 된다. 또한 보편언어의 가능성을 이미 담보한 호모 사피엔스에게 있어서 몇 천년이란 그리 큰 시간단위가 아니다.

2) 전혀 다른 두 문명의 만남의 중요성⁷⁾: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황하 문명, 신화적-초월적 성격과 인문적-내재적 성격, 유럽 문명의 사상적 기반과 동아시아 문명의 사상적 기반(같은 문명 내의 다른 생각의 비교와 더불어). 타자의 만남은 곧 자기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3) 세계의 변혁과 개인의 성숙의 문제: 우리네와 같은 일상의 자잘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드러나는 현실 세계의 변혁(정치철학, 헬레니즘 사회의 다양한 사상의 혼합과 제자백가)과 윤리의 확립이라는 주제의 공통성, 세계사적 개인의 위대성이 갖는

7) 인류는 다양한 신념/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교가 인류의 종교가 되려면, 이러한 점을 깊게 성찰하여야 한다. 이슬람교, 불교, 유교문화권만 해도 그리스도교와는 다른 광대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체계를 함부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거나 고치려는 행위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

『묵자』, 김학주, 명문당.

『중국의 사상』, 우노세이이찌, 열음사.

『중국고대사상사론』, 리쩌허우, 한길사.

『중국정치사상사』, 소공권, 서울대학교 출판부.

5. 왜 공자, 묵자, 예수인가?

“그래서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공부를 매개로 모종의 신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믿음을 얻은 뒤에 그제야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 탓에 신학은, 애초 그 정당성(legitimacy)이 의심스러운 신념을 정당화(justification)하는 장치로서 동원되곤 한다. 이 때문에 믿지 않고는 사유(공부)할 수 없는 한국 신학의 독특한 풍경이 연출된다. 전술했듯이 성경을 읽고 그 문자적 진리를 납득/수용한 뒤에 예수(하나님)를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모든 믿음에 ‘구성적 수행성 constitutive performativity’으로 개입하는 바로 그 ‘맹목성’에 의지해서) 믿어(버리고), 이후 그 믿음에 살을 붙이거나 혹은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정당화하는 과정이 곧 신학하는 행위로 표현되는 셈이다. 나는 이 땅의 교회 안팎을 가파르게 행군하거나 노량으로⁴⁾ 바장이는⁵⁾ 중에 성경을 하나의 텍스트로 정밀하게 독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앙을 얻은 사람을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다. 내가 과문한 탓이기도 하겠으나, 한국의 개신교 세계에서 그 같은 신자의 수를 의미 있는 통계치로 기입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내가 겪은 흥미로운 경험은, 문자의 간접성이 아니라 마음(심리)의 직접성에 의해 신앙생활의 근원과 토대(fons et origo)를 얻은 한국의 개신교도들과는 달리, 신앙 없이 신학을 공부하던 몇몇 일본인 친구의 흥미로운 태도를 접한 것이었다.

어쨌든 우선 마음으로 감(感)한 것을 이후의 제도적 교회생활이나 설교적 보충을 통해 이론화·정당화하는 관행은 신앙이 실존적 반조의 선택을 생략한 채 생활의 습관으로 굳어지게 하는 중요한 배경이다. ‘믿기에 존재한다(Credo ergo sum)’이 아니라 ‘사유·의심해서 존재한다(Cogito/Dubito ergo sum)’는 정신의 변침(變針)을 통해 근대적 주체화의 철학적 논리를 설명하곤 하는 데서 보듯이, 잘라 말하자면 그들의 경우에는 신앙의 ‘주체(화)’에 이르는 노역이 없거나 적은 셈이다. 주체화의 중요한 한 갈래는, 타인과의 사회적 연루를 자기 존재의 구성적 원리로 수렴해야 한다는 이치에 적절하게 응대하는 것임과 동시에, (한나 아렌트 등의 지론처럼) ‘당대의 지배체제와 불화하는 정신의 수위와 그 근기’를 통해 결절하는⁶⁾ 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스승인 예수야말로 당대의 지배구조와 불화하면서 ‘카이사라의 것’도 아닌, 더 나아가 ‘어머니(여자)에 속한 것’도 아닌 (동무)공동체적 결

4) 한가롭게 놀아가면서 느릿느릿하게.

5)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자꾸 조금씩 머뭇거리다.

6) 확실히 정하다.

『오늘의 예수』 앨버트 놀린, 분도출판사.
『젤롯』, 레자 아슬란, 와이즈베리.
『참사람 - 예수와 사람의 아들 수수께끼』, 월터 윈크, 한국기독교연구소.
『예수의 독설』, 김진호, 삼인.
『예수와 제국』, 리처드 호슬리, 한국기독교연구소.
『갈릴리- 예수와 랍비들의 사회적 맥락』, 리처드 호슬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예수 운동』, 조태연, 대한기독교서회.
『예수역사학』, 김진호, 다산글방.
『예수 르네상스』, 김진호 편, 한국신학연구소.
『갈릴래아 사람의 그림자』, 게르트 타이젠, 한국신학연구소.
『예수의 복음 - 최초의 복음서 찾기』 제임스 M. 로빈슨, 대한기독교서회.

*** 공자, 묵자와 관련하여.**

『논어한글역주 1. 2. 3』, 김용옥, 통나무.
『논어』, 동양고전연구회, 지식산업사.
『한글세대가 본 논어 1, 2』, 배병삼, 문학동네.
『도올논어 1, 2, 3』, 김용옥, 통나무.
『논어의 종합적 고찰』, 김영호외 지음, 심산.
『논어 1, 2, 3』, 심경호, 민음사.
『공자: 인간과 신화』, H. G. 크릴 著; 李成珪 譯, 지식산업사.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세상을 바꾸리라』, 시라카와 시즈카 지음; 장원철 옮김, 한길사.
『관중과 공자』, 강신주, 사계절.
『철학의 시대』, 강신주, 사계절.
『공자와 논어』, 요시카와 고지로 지음; 조영렬 옮김, 뿌리와 잎파리.
『유교의 뿌리를 찾아서』, 김승혜, 지식의 풍경.
『뚜웨이밍의 유학강의』, 뚜웨이밍/정용환 옮김, 청계.
『논어의 그리스도교적 이해』, 김승혜, 영성생활.
『성서옆에 논어놓고 논어옆에 성서놓고』, 최기섭·김형기, 성서와함께.
『중국철학사 상, 하』, 풍우란, 까치글방.
『우리에게 유교란 무엇인가』, 배병삼, 녹색평론사.
『도의 논쟁자들』, 앤거스 그레이엄, 새물결.
『중국사유』, 마르셀 그라네, 한길사.
『중국 고대사상의 세계』, 벤자민 슈월츠, 살림.
『묵자-공자를 딛고 일어난 천민 사상가』, 임건순, 시대의 창.
『묵자사상의 철학적 탐구』, 정재현, 서강대학교 출판부.
『묵자 읽기』, 박문현, 세창미디어.

2. 참여자들의 소개와 참여 동기 알아보기

- 1) 참여자들의 자기소개(이름, 하는 일, 관심분야 등등)
- 2) 이 성서 공부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3. 성서공부 진행에 대하여

- 1) 시간, 장소: 금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혹은 10시), 1층 유치부실 또는 2층 어린이부실
- 2) 진행방법: 기도, 강의, 강의 후 질의 응답
- 3) 목표:
 - 공자, 묵자, 예수와 같은 기축시대의 스승들의 글을 읽고 당시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갔는지 살핀다.
 - 공자, 묵자, 예수의 실천의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비교 대조해 보고, 오늘날의 상황과 견주어 본다.
 - 이런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의 현장에서 실천을 한다.
 - 그 실천은 궁극적 목적은 나의 삶의 방식의 전환에 있다.³⁾
- 4) 커리큘럼
 - 1강 강좌 안내: 왜 공자, 묵자, 예수인가?
 - 2강 전쟁과 평화
 - 3강 공자의 비전
 - 4강 묵자의 도전
 - 5강 예수의 헌신
 - 6강 하늘과 하나님 사이에서
 - 7강 사랑과 정치, 그 한계와 가능성
 - 8강 관계의 감각, 합리적 사유, 초월의 상징

4. 읽으면 도움 되는 책들

* 역사적 예수와 관련하여.

- 『역사적 예수』, 게르트 타이센/아네테 메르츠, 다산글방.
『역사적 예수』, 존 도미니크 크로산, 한국기독교연구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엘리자베스 A. 존슨, 대한기독교서회.
『나자렛 예수』, 교황 베네딕토 16세, 김영사.
『예수 새로 보기』, 마커스 보그, 한국신학연구소.

3) 현인들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그의 말대로 그가 살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되고 언행일치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은 성격으로 굳어졌을 때이다. 여기서 성격이란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자세와 정신적 구조를 말한다. 우리가 공자와 묵자와 예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나를 그분에 맞대면시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존재의 문제이며,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의 축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고대에 있어 말은 역사적 사실의 전달보다 인격의 드러냄과 더욱 관련되어 있었다. 이리하여 현인의 말은 곧 그것을 지키는 일, 즉 듣고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으며, 말씀이 전해진다면 더 이상 현인의 인간적인 특성(기질, 성질 등등)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이 그의 가장 본질을 드러낸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제 I 강 왜 공자, 목자, 예수인가?

9월 5일 한문덕 목사

0. 기도

1. 논어, 목자, 성서읽기: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 有朋自遠方來, 不亦樂乎? 人不知而不愠, 不亦君子乎?” <論語, 學而 제1>

<朱熹集註>

學之爲言, 效也. 人性皆善, 而覺有先後, 後覺者 必效先覺之所爲, 乃可以明善而復其初也. 習, 鳥數飛也. 學之不已, 如鳥數飛也. 說, 喜意也. 旣學而又時時習之, 則所學者熟而中心喜說, 其進自不能已矣. 程子曰: “習, 重習也. 時復思繹, 浹洽於中, 則說也.” 又曰: “學者, 將以行之也. 時習之, 則所學者在我, 故悅.” 謝氏¹⁾曰: “時習者, 無時而不習. 坐如尸, 坐時習也. 立如齊, 立時習也.”

朋, 同類也. 自遠方來, 則近者可知. 程子曰: “以善及人, 而信從者衆, 故可樂.” 又曰: “說, 在心; 樂, 主發散, 在外.”

愠, 含怒意. 君子, 成德之名. 尹氏²⁾曰: “學, 在己; 知不知, 在人. 何愠之有?” 程子曰: “雖樂於及人, 不見是而無悶, 乃所謂君子.” 愚謂, 及人而樂者, 順而易; 不知而不愠者, 逆而難. 故惟成德者能之. 然德之所以成, 亦由學之正, 習之熟, 說之深而不已焉耳. ○程子曰: “樂, 由說而後得. 非樂, 不足以語君子.”

是故子墨子言曰: “今天下之君子忠實欲天下之富而惡其貧, 欲天下之治而惡其亂, 當兼相愛, 交相利. 此聖王之法, 天下之治道也. 不可不務爲也. <墨子, 兼愛 中>

“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신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한 너희가 너희 형제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마태복음 5장 43-48절>

1) 謝良佐(1050-1103) 북송 사람으로 정이천/정명도 선생의 수제자 중 하나.

2) 尹焞(1071-1142) 兩宋 사람